

# 『竹取物語』의 時間意識

金 成 俸\*

## 目 次

- |                 |            |
|-----------------|------------|
| I. 序論           | V. 矛盾性     |
| II. 「今は昔」       | VI. 天皇의 系譜 |
| III. 「日數」와 「日付」 | VII. 結論    |
| IV. 달(月)        |            |

## I. 序 論

古典을 研究할 경우 古代日本人의 思想에 있어서 그 基本的 要素 中の 하나인 時間意識에 대해서 檢討하는 것이 基本的인 課題라고 본다. 왜냐하면 時間이란 個人으로서는 生과 死가 實現되는 場이고 또, 社會나 國家로서는 그 歷史가 形成되는 場이기 때문이다.

그런 觀點 下에서 平安時代의 時間은 어떻게 意識되었는가를 文學作品中에서 檢討하려고 한 以上 當然히 平安初期作으로 「物語」의 出發點이 된 『竹取物語』에서 出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作品을 擇하게 되었다.

時間論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現在까지 예를 들면 日常的, 歷史的, 實存的, 哲學的 等 實로 여러가지 種類의 것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循環的 時間과 直進的 時間 等を 생각해 보고 싶다.

循環的 時間意識은 古代人이 가지고 있는

---

\* 人文大 專任講師

「一年の間の變化と、其時々を區畫する周期行事とがあつて、四季以上に時の節度に應じて行ふ約束を知つてゐた。けれども、さう言ふ一年期が經過して、復全く新しい年が來る、と考へたのではなかつた。まのあたり新しく年は來るが、其は去年とそつくり同じ年が、くり返されて來るものと信じて居た。だが現實には、年々に偶發突發相踵いで、どの年とても全くおなじ性質の年としては、あられよう筈がなかつた。其れにも繫らず、昔人には全くおなじ一年と感じられた。一定の時間を以て統合せられる一年は、一つ内容のものとして、常に同一の年が來る」<sup>1)</sup>

라는 思考라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이 每年 되풀이 해서 오는 四季의 變化, 農作物의 收穫, 그리고 收穫祭 모두가 自然에 依해서 나타나는 時間으로 본다.

直進的 時間이란 一日一日, 一刻一刻 經過해 가는 時間을 나타내는 것으로 現實의 人間世上에 있어서 主要한 要素를 이루고 있는 時間이라고 본다.

그러면, 古代人の 農民生活은 四季의 自然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니까 循環的 時間意識을 보다 基本的인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時間意識을 살펴 보고자 하는 『竹取物語』는 平安時代初期 貴族社會에서 誕生한 作品이다. 그리고, 作者도 貴族社會의 一員<sup>2)</sup>이고, 文學上의 新産物도 그 性質은 역시 貴族的이다.<sup>3)</sup>라는 點과 作品의 登場人物도 當時 最高 貴族들만 描寫되었다는 것 등으로 보아도 當時 社會는 民衆과 距離가 먼 貴族들을 中心으로 한 社會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農耕生活과 距離가 먼 貴族社會에서 人爲的인 年中行事과 連結되는 四季는 그 樣相을 달리 한다고 본다.

그러면 『竹取物語』의 作品을 통해서 天皇을 頂點으로 하는 平安時代初期의 貴族社會는 어떠한 時間意識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짧은 「物語」속에서 全貌를 엿본다는 것은 不可能하겠지만 이 作品을 통해서 그 當時 世界를 構成하는 基本的 要素인 時間意識을 究明하고자 한다.

## II. 「今は昔」

「今は昔、竹取の翁といふものありけり。」<sup>4)</sup>

로 시작되는 『竹取物語』의 冒頭 「今は昔」라는 말이 이 作品 以前에도 使用되었는지를 調査해 본 바 『萬葉集』의 卷一六에서

「昔老翁ありき。」

- 1) 折口信夫, 「聲樂と文學と」, (『折口信夫全集』第七卷, 中央公論社), p. 233.
- 2) 田中元, 「竹取・伊勢物語の世界」, 吉川弘文館, 1982, p. 174.
- 3) 津田左右吉, 「文學に現はれたる國民思想」第一卷, 岩波書店, 1977, p. 326.
- 4) 「竹取物語」, 日本古典文學全集 8, 小學館, 1983, p. 51. 本文引用.

라는 形을 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古代의 傳承은 단지 「昔」<sup>むかし</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現在에서도 「昔……がありました。」라는 形으로 그 意味는 「昔」<sup>むかし</sup>의 것이면서도 그것에 連結되는 「今」<sup>いま</sup>가 있다. 혹은, 지금 이러한 것은 옛날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今」<sup>いま</sup>와 「昔」<sup>むかし</sup>를 連結해서 그 一體화된 時空에 傳承의 世界가 展開되었다고 본다. 即, 「昔」과 「今」가 하나로 이어지는 까닭에 傳承이 믿어져 온 것이다.

그러면, 時間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昔」라는 것은 語源的으로는 저쪽의 意味이다. 그것이 時間적으로 轉用되어 「今」과 區別되어 저쪽의 어떤 時點을 가리키는 데에 반해서 「今」<sup>いま</sup>는 特定の 時間點 等に 固定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 例를 들면,

「今私は字を書いている」

에서 「今」<sup>いま</sup>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다른 「今」로 변해 버린다. 即, 그것은 特定の 瞬間的인 點이 아니고 一定한 幅 乃至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竹取物語』에 나오는 「今は昔」라는 말은 「今」을 特定の 時間에 限定하는 「昔」로 바꿔 놓는 것은 當然하지 않다. 또, 過去・現在・未來를 嚴密히 區別하는 말로서 「今」<sup>いま</sup>는 「現在」에 對應하기 때문에 「今は昔」라는 말은 現在는 過去라는 것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點에서 보면, 「昔」의 것을 말할 때 「萬葉集」에서와 같이

「昔老翁ありき」

라는 것이 當然하다고 본다.

그러나, 平安時代 『伊勢物語』, 『大和物語』, 『宇津保物語』 등은 冒頭に 「昔…」라고 하지만, 平安初期作인 『竹取物語』에서 「今は昔」라는 말투가 처음 나타난 後에 佛教說話를 주로 모은 『今昔物語』의 冒頭에서

「今は昔、皇極天皇と申しける」<sup>5)</sup>

와 같이 나타나고 中世時代に 가서는 「今昔物語」의 系統을 잇는 說話集 『宇治拾遺物語』에서

「今は昔、比叡の山に兒ありけり。」(卷一の一)

「これも今は昔、繪佛師良秀といふありけり。」(卷三の六)

와 같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注目된다.

그러면, 「今は昔」의 解釋에 對해서 野口元大와 片桐洋一의 見解를 살펴보면 野口元大는

5) 武石彰夫譯註, 「今昔物語集」, 旺文社, 1983, p. 10.

『「今から言えばもう昔のこと」または「今ではもう昔のこと」といふものであり、これは「今」はこの物語を語る者とそれを聴く者が向きあっている現在の時間、それに對して「昔」はその現在の現實と次元を異にした別の時間の世界である。』<sup>6)</sup>

라는 說과 片桐洋一の

『「今」を過去のある時のこととし、語り手がその「ある時に」身をおいて「それは昔のことですが」』<sup>7)</sup>

라는 說이 있다.

前者의 見解는 聽者와 話者가 서로 보고 있는 것은 「今」의 日常的 世界이지만 그곳에서 말하여져 듣는 것은 「昔」의 이야기 世界라는 것이다. 即, 話者와 聽者를 「昔」의 世界로 옮기는 그런 意味인 것이다. 이것은 뭐 어려울 것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話者와 聽者가 日常 現實世界에서는 利害의 對立, 人間關係 等으로 밤낮 神經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 場所에 나온 以上 눈을 감고 日常的 世界의 感覺과는 다른 새로운 感覺으로 옛날 이야기 世界로 들어가 보자는 식으로 日常 現實世界와는 遮斷된 一種의 抽象世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今は昔」라는 말을 들을 때 우선 느끼는 것은 두 見解 中 前者의 解釋이겠지만, 단 過去에 自身을 두고 「今は昔だ」라는 後者의 解釋에 對해서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一般的으로 생각해 보아도 「昔」로서 말하여지는 內容은 역시 「今」에서 보면 「昔」의 事項이고, 그 事項은 결코 「今」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野口氏의 見解대로 「今は昔」은 「今」와 「昔」를 分離해서 「今」은 現在, 「昔」은 過去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兩者가 完全히 分離되어 버리면 「物語」는 成立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現在와 關連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今は昔」에서는 「今」과 「昔」가 自覺적으로 區別되지만 日常의 現實意識에서 解放된 곳에서 「物語」의 世界에 들어 간다는 點으로 볼 때, 「昔」과 「今」은 關係지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野口氏가 본 「今からすればもう昔」라는 解釋에서 「昔」은 「今」와는 自覺적으로 分別되는 것이라도 그 「昔」의 이야기는 「今」에 생기고 있는 것이고, 阪倉氏의 「昔の世界に入って、そこは今」라는 解釋도 「今」의 話者·聽者가 「昔」에 들어 있다고 하는 限, 「今」과 一體化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으로 살펴 본 바, 「昔」가 「今」에 이어지는 古代의 傳承은 平安以前 『萬葉集』 등에 「昔老翁はりき」라고 말하여지는 곳에서는 「昔」과 「今」가 意識的 自覺적으로 分離되어 있지 않는 것에 반해서, 「今は昔」라고 말하기 시작한 『竹取物語』에서는 「昔」가 「今」와는 다르다는 것이 自覺되고 意識되고 있다는 點이다. 그리고 여기서 「昔」은 「今」의 話者와 聽者가 거기에 옮겨지는 「昔」이다. 따라서, 그 경우 客觀視되는 것은 「昔」임과 同時에 「今」이다. 即, 이것은 「今」과 一體化

6) 野口元大, 「竹取物語」, 新潮日本古典集成, 1984, p. 175.

7) 「竹取物語」, 小學館, 日本古典文學全集, 1983, p. 51.

하는 「昔」라고 볼 수 있다. 이런 點에서 「昔」와 「今」는 直進的 時間上에 있으면서 「今は昔」로서 이야기되는 것은 直進的 時間世界를 超越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 作品에 直進的 時間世界를 超越하게 된 것이 나오게 된 要素를 살펴 보면, 平安朝 文學의 環境을 이루는 京都가 좁게 閉塞된 社會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理由는,

① 『竹取物語』의 作品에서

〈天竺〉, 〈蓬萊〉, 〈唐土〉 어느 것이나 日本人에게 먼 異國의 所在地가 憧憬의 對象이 되어 나오고 結局 클라이막스(Climax) 部分인 「天の羽衣」段에 가서는 不老不死의 〈月世界〉까지 憧憬의 對象으로 나온다는 點.

② 時代的 背景에서

津田의 見解를 보면 地形的으로 平安朝의 首都인 京都는 平安朝 以前의 首都(飛鳥, 藤原, 平城) 등과 比較하면 狹隘하고 小規模인 山과 江을 이루고 있다.<sup>8)</sup> 고 하는데 이러한 좁은 地形을 平安貴族들은 벗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當時는 政治世界와는 다른 唐風文化謳歌時代이다. 그 理由로 政治的 統制力이 弱한 社會가 되어 地方에도 政治的 腐敗에서 생긴 盜賊이 많았다.<sup>9)</sup> 그래서 平安貴族들은 地方에 나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했다는 點이다.

이와 같은 當時 空間의 閉鎖性은 時間的 閉鎖性과 關連한다. 또 이러한 時間的 被限定性, 閉鎖性은 時間的 推移에 銳敏한 感覺을 가진다고 본다. 即, 이와 같은 時間構造에 있어서는 直進的 時間을 超越한다는 것은 直進的 遡及을 許容한다는 意味로 본다.

그렇게 보는 理由는 『竹取物語』는 「物語」의 最初의 作品으로 當時의 狹義의 現實과는 다른 異國風文化의 世界에서 模倣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創造的 營爲는 無視할 수 없다. 即, 이 作品은 唐風文化謳歌時代의 知的營爲의 產物이고 그것이 創造된 世界는 狹義의 現實과는 다른 世界이다. 왜냐하면, 「物語」는 狹義의 現實을 超越하여 그것과 다른 世界를 描寫하는 픽션(tiction)으로서 創造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狹義의 現實을 客觀的인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世界를 虛構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現實世界와는 다른 時間이 表示되게 된다. 即, 被限定的 閉鎖的인 時間 乃至 世界가 모두가 아니라는 것이다.

以上の 論議에서 日本 古代 中古 平安時代 사람들의 世界는 直進的 時間世界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超越한 漠然한 時間을 豫感하고 있었는지 혹은, 알고 있었다고 본다. 더 言及을 하면, 平安時代 사람들의 世界는 直進的 時間世界인데 그것을 凝縮하면 「今」에 있고, 그리고 「今」는 時間을 超越하는 要素로 인하여 直線의 點과 같은 것이 아니고 멈출 것 같지도 않는 漠然한 點이다. 그런 理由로 「今は昔」라고 할 때 「未來」와 關係가 지어지지 않고 過去에 由來하는 生命力으로 보고 싶다. 따라서, 그 當時 「今」를 산다는 것은 現實否定的 諦念的인 心情, 혹은 떠도는 人生 떠도는 時間이 內包되어 있고 그 속에는 「未來」에 대한 積極的인 存在는 볼 수 없다고 본다.

8) 津田左右吉, 「文學に現はれる國民思想」 第一卷, 岩波書店, 1977, p. 399.

9) 津田左右吉, 「文學に現はれたる國民思想」 第一卷, 岩波書店, 1977, p. 400.

## Ⅲ. 「日數」와 「日付」

一般的으로 神話は 勿論, 説話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日付나 時刻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普通이다. 但, 説話文學인 『日本靈異記』는 歴史上의 事實을 關連지어서 叙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當然 거기에는 日付 등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서 假分 説話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竹取物語』와 關連이 있는 『風土記』의 「奈具社」, 「伊香小江」나 혹은 『萬葉集』의 「竹取翁」의 이야기 등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그것들과 對比해서 『竹取物語』를 살펴 보면, 日數나 日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하나의 特徵이다. 예를 들면,

「かくや姫の生ひたち」段에서

- ①「三月ばかりになるほどに, よきほどなる人になりぬれば……」<sup>10)</sup>  
 ②「このほど三日うちあげ遊ぶ」<sup>11)</sup>

「つまどひ」段에서

- ③「翁, 年七十に餘りぬ, 今日とも明日とも知らず。」<sup>12)</sup>

「蓬萊の玉の枝」段에서

- ④「三日ばかりありて漕ぎ歸り給ひぬ」<sup>13)</sup>  
 ⑤「さをととのしの二月の十日ごろ難波より船に乗りて……」<sup>14)</sup>  
 ⑥「海に漂ひて五百日といふ辰の刻ばかり……」<sup>15)</sup>  
 ⑦「船に乗りて追風ふきて, 四百餘日になむまうで來にし。」<sup>16)</sup>  
 ⑧「千餘日に力を盡したること少からず。」<sup>17)</sup>

「天の羽ごろも」段에서

- ⑨「翁, 今年は五十ばかりなりけれども。」<sup>18)</sup>  
 ⑩「かくや姫を養ひ奉ること二十餘年になりぬ。」<sup>19)</sup>

10) 「竹取物語」, 日本古典文學全集 8, 小學館, 1983, p.52. 本文引用.

11) 「竹取物語」, 前掲書, p.52. 本文引用.

12) 「竹取物語」, 前掲書, p.55. 本文引用.

13) 「竹取物語」, 前掲書, p.61. 本文引用.

14) 「竹取物語」, 前掲書, p.63. 本文引用.

15) 「竹取物語」, 前掲書, p.64. 本文引用.

16) 「竹取物語」, 前掲書, p.66. 本文引用.

17) 「竹取物語」, 前掲書, p.67. 本文引用.

18) 「竹取物語」, 前掲書, p.98. 本文引用.

19) 「竹取物語」, 前掲書, p.103. 本文引用.

와 같이 日數나 日付가 꽤 많이 나타나 있다.

우선 위의 예에서 ①, ②, ⑨를 除外하고는 日數가 꽤 寫實的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作者가 直進的 時間을 意識的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理由를 作品에서 보면, 「車持皇子」가 「翁」에게 「蓬萊の玉の枝」를 구한 航海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場面 ⑤와 그 後 ⑥의 무렵에 바다에 희미한 山을 發見해서 그 山이 蓬萊山이라는 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蓬萊の玉の枝」를 구해서 돌아왔다고 말하는 場面 ⑦를 注意깊게 보면 ⑥의 「五百日」과 ⑦의 「四百餘日」를 합치면 ⑤의 「さをととし」와 맞는 것이고, 그 後 「蓬萊の玉の枝」를 만든 細工人들이 「車持皇子」가 보수도 주지 않는 것에 報復으로 말하는 場面 ⑧의 「千餘日」과도 맞는 것이다. 그리고, 또 天人인 王에게 「竹取翁」가 말한 ⑩의 「二十餘年」은 五人의 求婚者와 天皇과의 關係가 各各 三年과, 그것에 앞서 「つまとひ」段에서 求婚者들의 소요 期間 三年을 합치면 數量的으로 맞는 것이다.

이와 같이 作品에 現實의 人間 社會生活에서 빼놓을 수 없는 主要한 要素인 一日一日, 一刻一刻 經過해 가는 直進的 時間이 反映된 理由는 曆의 知識이라고 본다.

曆은 古代 農耕社會에서는 農事와 關連이 있는 季節을 미리 正確하게 알기 위해서 必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런 經濟的인 要求에서 뿐만 아니라 古代社會는 祭祀가 重要時되었는데 그것을 規則的으로 行하기 위해서도 必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古代社會에 必要한 曆의 發生은 春耕·秋收 等 時間의 經過에 隨伴하는 季節의 循環週期의 結晶에 成功했을 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季節의 循環週期 即 太陽年의 길이는 約 365日이라는 數는 古代人에게는 상당히 큰 數이므로 統計法이 確實해지지 않으면 週期를 日數로 따지는 것은 困難한 일이다. 特別히 이 方面에 뜻을 둔 古代人이 있어 나무가지에 흙을 내어 日數를 세는 일이 實行되었다 하더라도 春耕·秋收에 着眼하고 있었다면 1年의 日數가 큰 숫자라는 것, 每年의 日數偏差 等에 依해 確實한 季節 循環週期를 把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日數 그 자체보다도 하늘에 뜬 달 모양의 變化라는 보다 긴 日數單位(朔望月)이라 한다. 約 29.5日)에 基礎하여 그 몇 배가 季節 循環에 該當하는가를 알아 내는 편이 쉬울 것으로 想像된다. 따라서 古代人은 無意識的으로나 實際的인 便宜에 依하여 朔望月과 太陽年의 길이를 造化한 太陰太陽曆을 使用한 것으로 본다. 1太陽年은 約 12·3朔望月に 該當한다. 따라서, 거의 12개월이 春耕·秋收, 또는 다른 季節의 눈금이 되는 自然現象의 되풀이인 週期라는 것, 다만 이것으로는 좀 짧아 12개월이 1年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 季節이 어긋난다는 知識 即, 太陰曆에서는 新年 元旦과 立春은 大개 一致하는 것이 通例인데 때로는 舊年 中에 立春이 와 버리는 誤差가 생겨 調整을 要한다는 知識은 古代文明을 가진 곳에서 일찍부터 알려진 일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曆의 知識은 日本에서는 「竹取物語」 成立時期인 平安時代의 作品 「古今集」에서

「年のうちに春は來にけり一年をこそとや言はんことしと言はん」<sup>20)</sup>

20) 「古今和歌集」, 日本古典文學大系 8, 岩波書店, 1976, p. 105.

와 같이 잘 엮을 수 있다.

이와 같은 曆이 日本에 언제 어떠한 形으로 渡來하고 어떠한 經路로 普遍化해 갔는지 確實히는 모르지만 記錄上으로 導入된 時期는 百濟 聖王23年(554)에 曆博士를 日本에 보냈고, 그 後 武王3年(602)에 曆書와 天文書를 가지고 日本에 갔다<sup>21)</sup>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서 實際生活에 採擇해 갔는지는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竹取物語』 成立時期인 平安初期는 唐風文化謳時代로 인해 急激하게 隆盛한 漢詩文 作者들은 中國 古來의 知識을 模倣으로 읊조리고, 또 當時 隨나 唐에 留學한 사람들 中에 曆法을 배운 者도 있어 그런지는 모르나 農耕을 떠나 있는 上層의 都人士, 宮廷의 官僚들 사이에 太陰曆이 通用하고, 그것에 따라서 日常의 時務를 다 하면서 春夏秋冬의 季節을 느끼고 있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竹取物語』 成立時期인 平安時代는 四季, 月, 日의 意識이 曆의 知識과 連結되어 固定化해 간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理由는 平安以前의 『萬葉集』와 平安時代의 『古今集』를 自然의 景物을 바라 보는 觀點에서 살펴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比較해 살펴 보면,

『萬葉集』에서는 二十卷 中 卷八과 卷十의 兩卷만이 四季로 나누어 각 季마다 다시 雜歌와 相聞으로 分類하는데, 그 노래를 보면,

「石ばしる垂水の上のさ蕨の萌え出づる春になりけるかも」(卷八-1418)

에서는 봄(春)이 되었다. 고사리(蕨)가 싹을 내다가 아니고 가냘프게 돌아나는 고사리에 봄을 느끼고 봄이 되었다는 기쁨을 아름답게 노래한 것이다. 또 한 수를 보면,

「うちなびく春來らし, 山の際の遠き木末の咲き行く見れば」(卷八-1422)

와 같이 멀리 나무가지가 나날이 꽃이 增加해 가는 모습에 봄(春)을 느끼고 있다. 以上으로 볼 때 『萬葉集』에서는 自然을 느낄 때 보는 대로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人間と自然の一體感」<sup>22)</sup>이라는 말과 같이 自然의 景物에 立脚하여 봄(春)혹은 여름(夏)이 왔다는 것이다. 即, 自然은 그대로 있고 人間 쪽이 自然에 同化共感하는 것으로 이때의 時間은 循環的 時間이다.

『古今集』에서는 四季의 順序를 『萬葉集』보다 嚴格하게 季節時候의 順序에 따라 노래하고 있다. 例를 들면 「春部」에서는 「首春」, 「仲春」, 「首春」이라는 順序이고, 또 같은 「首春」에 있어서도 피는 梅花를 먼저 두고, 지는 梅花를 後로하는 編纂 形式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보면,

「春がすみ立てるやいづこみ吉野の吉野の山に雪は降りつつ。」<sup>23)</sup>

21) 「한국사 3, 民族의 統一」, 탐구당, 1981, p381.

22) 田中元, 前掲書, p.78.

23) 「古今和歌集」, 日本古典文學大系 8, 岩波書店, 1976, p.105.





와 같이 달과 女性이 深層心理의 次元에서 連結되어 있다는 것이 注目된다. 이러한 思考가 中國 由來의 知識에 根據를 둔 것인지 아니면 日本 古來의 思考方式인지는 모르나 그것을 떠나서 달이 女性과 連結되었다는 點에서 그 當時 平安時代 사람들은 달의 盈虧現象週期(朔望月)를 알고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달의 盈虧現象週기가 女性의 生理週기와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點으로 미루어 보아 달이 男性과 連結된 平安以前時代는 달의 盈虧現象週기를 모르는 食物採集段階社會라고 볼 수 있고, 달이 女性과 連結된 平安時代는 달의 盈虧現象週기를 알면서 食物을 栽培하는 農耕社會라고 본다.

둘째, 『萬葉集』卷七의 雜歌「泳月」에 十八首(1069~1089)가 달에 대한 노래가 실려 있는데 그것을 보면,

「天の海に雪の波立ち月の船星の林にこぎ隠る見ゆ」(1068)

「春日山おして照らせるこの月は妹が庭にも清けかりけり」(1074)

와 같이 어느 것이나 季節도 날(日)도 仲秋明月의 觀念도 나타나 있지 않는데, 반해서 『竹取物語』에서는 仲秋明月의 觀念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八月十五日ばかりの月に出て居て……」<sup>27)</sup>

와 같이 <かぐや姫>가 中秋明月을 觀玩한다는 要素와 그리고, <月世界>와 現實世界와의 接觸에서 보면,

「八月十五日に、かの本の國より迎へに人々まうでこむず」<sup>28)</sup>

라는 表現에서도 中秋明月의 意識이 나타나 있다. 물론 이러한 思考도 中國的 發想에 依한 異國的 表現이라고도 하지만 확실히 平安時代 사람들은 一年 中에 달이 가장 밝은 날이 八月十五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예를 들면,

「家のあたり、晝の明かさにも過ぎて、光りたり、望月の明かさを十合せたるばかりにて、ある人の孔さえ見ゆるほど」<sup>29)</sup>

와 같이 <月世界>의 사람이 地上에 내려오는데 八月十五日이 가장 어울리는 밝은 날이라는 思考가 들어 있다.

27) 「竹取物語」, 前掲書, p. 96. 本文引用.

28) 「竹取物語」, 前掲書, p. 98. 本文引用.

29) 「竹取物語」, 前掲書, p. 102. 本文引用.

세째, 앞에서 言及한 것과 같이 『萬葉集』에서는 달에 대한 日數가 表示되어 있지 않는데 반해서 『竹取物語』에서는 달에 대한 日數意識이

「七月の十五日の月に出で居て…」<sup>30)</sup>

「八月十五日はかりの月に出でて…」<sup>31)</sup>

와 같이 나타나 있다. 이것으로 보아 當時 平安時代 사람들을 달(月)의 時間意識(太陰曆)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理由를 같은 時代の 作品 『伊勢物語』에서 보면,

「時はやよいのついたち」(二段)

「五月のつごもり」(九段)

「十二月のつごもり」(四十一段)

「六月の望ばかり」(九十六段)

와 같이 各各의 달도 「ついたち」, 「望」, 「つごもり」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表現은 달(月)이 圓滿하게 되는 것은 十四, 十五, 十六의 밤이고, 이 時間을 基準으로 달이 出現하는 月初를 「朔」<sup>ついたち</sup>라 하고 달이 가득차서 결국 숨는 時間을 「つごもり」라는 것이다. 이런 點으로 볼 때, 그 當時 平安時代 사람들에게는 各各의 달도 「一日」, 「望」, 「つごもり」로 移行해 가는 直進的 時間意識이 한층 強하게 意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竹取物語』에 달에 대한 日數意識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다.

네째, 古代 日本에 보여지지 않는 古代의 印度, 中國 等に 보여지는 不老·不死의 강한 願望이 『竹取物語』에

「かの都の人は、いとけうらに、老いをせずなむ」<sup>32)</sup>

「天人の中にもたたせたる箱あり、天の羽衣入れり、又あるは不死の薬入れり」<sup>33)</sup>

와 같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注目된다. 그러면, 現實世界에서 備을 수 없는 直進的 時間과 直進的 時間을 超越한 不老·不死에 대하여 當時人들은 어떠한 思考를 가지고 있는지 『竹取物語』를 通해 살펴 보면, 作品의 全體的인 雰囲気는 不老·不死의 <月世界>가 憧憬의 對象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不死가 作品에 있어서 絶對的인 願望의 對象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30) 『竹取物語』, 前掲書, p. 95. 本文引用.

31) 『竹取物語』, 前掲書, p. 96. 本文引用.

32) 『竹取物語』, 前掲書, p. 101. 本文引用.

33) 『竹取物語』, 前掲書, p. 105. 本文引用.

「月の顔見るは忌む事」<sup>34)</sup>

와 같이 달을 보는 것을禁한다고 나타나 있고, 또 作品의 終結部分에서 天皇이 말한

「逢ふこともなみだに浮かぶわが身には死なぬ薬もなにかはせむ」<sup>35)</sup>

라는 말 속에는 不死보다는 現實의 生活方式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內在되어 있다. 그리고,

「不死の薬の壺ならべて、火をつけて燃やすべきよし仰せ給ふ」<sup>36)</sup>

와 같이 不死의 藥을 태워 버리는 것으로 이 作品은 끝나는 것과 같이 現實에서는 不死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立場으로 處理하고 있다. 즉, 이 「物語」는 現實을 批判하면서도 全體的으로는 老·死를 면할 수 없는 現實을 肯定하고있다. 이것을 時間的으로 생각해 보면, 現實의 人間世上은 直進的 時間의 世界이면서도 그것이 모두가 아니다. 즉 不老·不死라는 超時的 乃至 無時間的인 世界도 알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直進的 時間을 超越한 것이 直進的 時間 속에 浸透 融合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다섯째, 앞에서 본 二元的인 思考 即, 老·死라는 一方向的인 時間을 나타내는 現實世界와 그것을 超越하는 不老·不死의 月世界, 이 두 개의 世界가 八月十五日 接觸될 때 各各의 다른 時間으로 作品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天の羽衣」段에서 「翁」가 天人에게 말한 部分

「かくや姫を養ひ奉ること二十餘年になりぬ。」<sup>37)</sup>

에서는 「かくや姫」가 現實世界에 二十餘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月世界에서는

「月の都の人にて父母あり、片時の間とて、かの國よりまうで來しかども、かくこの國には、あまたの年を経ぬるになむありける。」<sup>38)</sup>

와 같이 現實世界의 二十餘年이 極도로 壓縮되어 <片時の間>로 表現되었다. 이러한 表現을 『浦島物語』에서 <浦島>의 아이가 神仙郷에서 三年을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現實世界에서는 이미 三百餘年이 지냈다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永遠한 生命이 있다는 神仙思想에서 起因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時間的으로 생각해 볼 때, 不老·不死의 世界에서는 一方向的·直進的 時間

34) 「竹取物語」, 前掲書, p.95. 本文引用.

35) 「竹取物語」, 前掲書, p.107. 本文引用.

36) 「竹取物語」, 前掲書, p.106. 本文引用.

37) 「竹取物語」, 前掲書, p.103. 本文引用.

38) 「竹取物語」, 前掲書, p.98. 本文引用.

은 本來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片時の間〉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理由를 作品에서 보면,

「おのが身は、二の國の人にもあらず、月の都の人なり。」<sup>39)</sup>

「月の都の人にて父母あり。」<sup>40)</sup>

「かの國の父母のことも覺えず。」<sup>41)</sup>

에서와 같이 〈國〉·〈都〉·〈人〉·〈父母〉 등이 現實世界와 類似的인 것으로 〈月世界〉를 描寫하고 있는 것과 같이 時間도 現實世界 時間과 對比해서 〈月世界〉의 時間을 表示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對比를 통해서 當時 平安時代 사람들의 時間意識 다음과 같이 推測할 수 다. 즉 當時 사람들은 現實을 超越하는 것을 表示하고자 할 때 時間도 空間도 無限으로 擴大해 가는 方法인 時間의 長短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 V. 矛盾性

이 章에서는 時間的인 意識으로 볼 때, 前後 關係가 矛盾인 것에서 時間意識을 살펴 보면, 먼저

「三月ばかりになるほどに、よきほどなる人になりぬれば…」<sup>42)</sup>

에서와 같이 三寸정도의 사람이 三個月정도로 어른의 키만큼 되었다는 이 表現은 「物語」의 前後가 「カタリゴト系統」으로서 작고 위력이 있는 主人公이 人間의 손에 넘겨지면 갑자기 크게 된다는 例로 볼 수 있지만, 「かぐや姫」가 대(竹)속에서 誕生했으니까 대의 特性을 살펴 보면,

「竹は地上にあらわれてから、二～三か月で親に生長してしまい、以後何年たっても大きくならない」<sup>43)</sup>

와 같이 「かぐや姫」의 成長에 거의 맞아 있다. 또 대가 「かぐや姫」의 母體가 될 수 있는 것도 人間에게 胎兒를 孕胎할 수 있는 空洞인 子宮이 있듯이 대도 마디와 마디 사이에 빈 空間이 있다는 點에서 古代人은 이런 대의 特性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竹取物語』의 成立 以前부터 農耕生活을 하는 古代人에게는 대(竹)가 穀物의 生産과 處理에 耒, 杷, 鎌, 等의 用具로 使用되어지고 또 農耕儀禮를 위해 篳篥 等 樂器를 必要로 했기 때문에 대의 使用은 人間生活과

39) 『竹取物語』, 前掲書, p. 97. 本文引用.

40) 『竹取物語』, 前掲書, p. 98. 本文引用.

41) 『竹取物語』, 前掲書, p. 98. 本文引用.

42) 『竹取物語』, 前掲書, p. 52. 本文引用.

43) 上田弘一郎, 「竹と日本人」, 日本放送出版協會刊, 1983, p. 89.

꿈을 수 없는 關係에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위의 表現은 時間性的 矛盾으로 보기보다는 대의 特性을 古代人은 알고 그것을 擬人化로 使用했다고 본다. 以上과 같이 볼 때, 「三個月」만에 어른의 奇만큼 자랐다는 表現은 現實世界에서 矛盾이지만 대가 擬人化되었다면 三個月은 日數에 맞고 一日一日, 一刻一刻 經過해 가서 되었다고 하는 限 直進的 時間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다음에 「妻どひ」段에서

「翁, 年七十に餘りぬ, 今日とも明日とも知らず。」<sup>44)</sup>

라고 말하고 「天の羽ごろも」段에서

「翁, 今年は五十ばかりなりけれども。」<sup>45)</sup>

라고 말하는 場面를 보면, 「翁」의 나이가 前後 關係가 矛盾하고 있다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짧은 「物語」속에서 이런 矛盾을 誤寫라는 說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原本 그대로 보고 그 意味를 생각해 보면, 前者의 表現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老人이 自身の 딸인 <かぐや姫>가 아직 相對를 定하지 못한 것이 걱정이 되어 「翁」<sup>おきな</sup>가 自己의 餘命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強調하기 위하여 七十餘歲라고 말해 <かぐや姫>에게 結婚을 勸誘하는 것이고, 後者의 表現은 前後의 文脈을 살펴 보면,

「この事を難くに, 髪も白く, 腰もかがまり目もただれにけり, 翁, 今年は五十ばかりなりけれども, 物思ふ時には片時になむ老になりけると見ゆ。」<sup>46)</sup>

에서와 같이 「翁」<sup>おきな</sup>가 그 程度 늙은 것이 아닌데 <かぐや姫>가 昇天한다는 것에 悲歎을 참지 못하여 갑자기 늙은 것 같다는 것을 強調하기 위해 五十歲로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여튼 그 意味는 어떻게 지간에 불구하고 全體를 통해서 보면 七十과 五十는 確實히 直進的 時間意識의 整合性은 缺如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意味를 보았듯이 前者의 表現 七十에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生命이라는 老·死의 自覺이 表示되어 있고, 後者의 表現 五十에는 「髪も白く, 腰もかがまり目もただれにけり」와 같이 老의 意識이 表示되어 있다는 點에서 直進的 時間意識에 關係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老·死는 人間世上에서 直進的 時間意識과 가장 關係가 깊기 때문이다. 따라서, 直進的 時間意識의 整合性은 缺如되어 있으나 直進的 時間意識이 表示되어 있다.

44) 「竹取物語」, 前掲書, p.103. 本文引用.

45) 「竹取物語」, 前掲書, p.98. 本文引用.

46) 「竹取物語」, 前掲書, p.98~99. 本文引用.

## VI. 天皇의 系譜

人間的 生 또는 世界는 直進的 時間인데 반해서 神話的인 것은 直進的 時間과는 一種異質인 領域의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神의 世界는 超時間的 乃至 無時間的 世界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間的 系譜를 거슬러 올라가면 神의 時代에 連結된다는 點에서는 神의 世界와 人間的 世界는 一種異質의 것이면서 直進的 時間을 前提로 하는 系譜라든가 血緣的인 面에서 連續된다.

그러면, 系譜面에서 볼 때 子孫들에 대해서 共通性, 根源的인 統一性을 주는 存在가 先祖라고 불리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先祖는 子孫들 속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歷史를 超越한 存在가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系譜라는 것은 단지 歷代의 이름을 代代로 列擧하는 정도로 成立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系譜에 屬하는 者는 共通의 性格 乃至 統一性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天皇의 系譜上에서 共通性을 살펴 보면, 天皇의 先祖는 神이라는 것이다. 即, 이것은 天皇은 至尊으로서 神의 系譜를 繼承한다는 意味라고 본다.

그런데, 『竹取物語』 成立時期인 平安初期는 위의 觀念이 稀薄해지면서 天皇은 神이 아니고 人間的 要素가 作品에서나 時代上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作品中에서 보면, 『求婚難題譚』의 皇子, 右大臣, 大納言, 中納言이라는 最高의 貴族들이 滑稽化 되어 있는데 반해서 天皇은 別格의 存在로 나타나 있지만, 天上界의 힘 앞에서는,

「幸うじて思ひ起して、弓矢を取りたてむとすれども、手に力もなくなりて、瘳えかがりたる中に、心さかしき者念じて射むとすれども、外ざまへいきければ、あれも戰はで、心地ただしれににして、まもりあへり。」<sup>47)</sup>

와 같이 對抗할 수 있는 힘의 所有者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神과 同等한 存在가 아니라 現實世界에서 權力·權威에 있어서 第一人者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理由를 더 살펴 보면, 內侍가 天皇으로부터 <かぐや姫>의 容貌를 보고 오라는 命命을 받고 <かぐや姫>를 만났는 데, <かぐや姫>가 만나지 않겠다는 말에 內侍가

「國王の仰せ事を、まさに世に住み給はむ人の、承り給はでありなむや、いはれぬ事なし給ひそ。」<sup>48)</sup>

와 같이 말한 部分에서 <世>는 現世에 사는 人間으로서 天皇은 別格의 存在라는 것이 內包되어 있고 그 背後에 神의 後裔라는 觀念이 完全히 消失되어 버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벌써 天皇은 人間으로서 人間世界에서 第一人者라는 것을 意味한다.

47) 『竹取物語』, 前掲書, p.102. 本文引用.

48) 『竹取物語』, 前掲書, p.89. 本文引用.

이와 같이 天皇이 人間的인 要素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至高의 神에 由來한다는 天皇의 系譜의 觀念도 이미 優越的으로 意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을 時間的으로 생각할 경우, 天皇에 있어서 繼時的인 것, 直進的 時間意識이 主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共時的·同時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平安初期는 繼時的·直進的 時間意識에 속하는 天皇의 系譜가 現實의 人間世上에 浸透되어 人間世上에서 第一人者라는 人間的 系譜를 따르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點으로 볼 때, 그 當時의 直進的 時間은 現實世界 속에 限定된 것이라고 본다.

## Ⅶ. 結 論

以上과 같이 『竹取物語』를 통해서 時間意識을 調査해 본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 ① 「今は昔」

作品에 「今は昔」라고 말해지는 곳에서는 「未來」와 關係가 지어지지 않고 過去에 由來하는 生命力으로 보고 싶다. 따라서, 그 當時 平安時代 사람들이 「今」을 산다는 것에는 現實否定的 諦念的인 心情, 혹은 떠도는 人生, 떠도는 時間이 內包되어 있고 그 속에는 未來에 대한 積極的인 存在는 볼 수 없다.

### ② 「日數」와 「日付」

作品에 日數나 日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 注目된다. 그리고, 直進的 時間上에 생각되어지는 日數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주 寫實的으로 記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物語」의 世界가 直進的 時間世界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作品에 直進的 時間意識이 反映된 理由는 中國의 知識인 曆이라고 본다. 따라서, 曆이 언제부터 사람들의 生을 支配하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竹取物語』의 成立時期인 平安時代初期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의 生活에 影響力이 浸透해 있었다고 본다.

### ③ 달(月)

『萬葉集』에서는 달에 대한 日數가 表示되어 있지 않는데 반해서 『竹取物語』에는 달에 대한 日數 意識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當時 사람들은 달의 時間意識(太陰曆)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그 다음에 直進的 時間을 超越한 不老·不死에 대하여 作品에서 보면 全體的인 雰圍氣는 不老·不死的 <月世界>가 憧憬의 對象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終結部分에서 不死的 藥을 태워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이 不死가 作品에 있어서 絶對的인 願望의 對象이 아니고 老·死를 면할 수 없는 現實을 肯定하고 있다. 이것은 直進的 時間을 超越한 것이 直進的 時間 속에 浸透 融合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그리고, 不老·不死的 世界에서 一方向的, 直進的 時間은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現實世界的 <二十余年>이 極度로 壓縮되어 <片時の間>라고 作品에 나오는 것에서 當時 사람들은 現實을 超越하는 것 表示하고자 할 때 時間도 空間도 無限으로 擴大해 가는 方法인 時間의 長短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 ④ 矛盾性

「翁」의 나이가 前後 矛盾하고 있다는 것은 確實히 直進的 時間意識의 整合性은 缺如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前者의 七十과 後者의 五十에는 모두 老·死의 自覺이 表示되어 있다는 點에서 直進的 時間意識이 表示되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老·死는 人間世上에서 直進的 時間意識과 가장 關係가 깊기 때문이다.

## ⑤ 天皇의 系譜

繼時的·直進的 時間意識에 속하는 天皇의 系譜가 現實의 人間世上에 浸透되어 人間世上에서 第一人者라는 人間の 系譜를 따르다는 것은 當時의 直進的 時間은 現實世界 속에 限定된 것이라는 것을 意味한다고 본다.

以上の 論考에서 當時 平安時代 사람들의 時間意識은 循環的 時間이 아니고 現實의 人間世上에서 主要한 要素의 하나인 直進的 時間世界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超越한 漠然한 時間世界를 알고 있었다고 본다.

## 參 考 文 獻

1. 「竹取物語」・伊勢物語・大和物語・平中物語, 日本古典文學全集8, 小學館, 1982.
2. 野口元大, 「竹取物語」, 新潮日本古典集成, 1984.
3. 津田左右吉, 「文學に現はれたる國民思想」第一卷, 岩波書店, 1977.
4. 「平安朝物語 I」,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有精堂, 1979.
5. 上田弘一郎, 「竹と日本人」, 日本放送出版協會看, 1983.
6. 田中元, 「古代日本人の世界」, 吉川弘文館, 1972.
7. 田中元, 「竹取・伊勢物語の世界」, 吉川弘文館, 1982.
8. 坂本太郎, 「古典と歴史」, 吉川弘文館, 1982.
9. 相良亨編, 「講座日本思想4時間」, 東京大學出版會, 1986.
10. 鶴久編, 「萬葉集」, 櫻楓社, 1980.
11. 佐伯梅牛校注, 「古今和歌集」, 日本古典文學大系 8, 岩波書店, 1976.
12. 唐木順三, 「日本人の心の歴史」, 筑摩書房, 1983.
13. 折口信夫, 「聲樂と文學と」, (『折口信夫全集』第七卷, 中央公論社), 1980.
14. 「한국사3, 民族의 統一」, 탐구당, 1981.
15. 玄正峻外共著, 「世界の 曆」, 三星文化文庫, 1981.

## Summary

### Time Consciousness of “Takedorimongatari”

*Kim Sung-bong*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over Japanese senses of time through Takedorimongatari, which is one of the basic thoughts during the Heian age.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seize the whole aspects of time consciousness through this short Monogatari, it would be possible to guess it by finding out one aspect of it.

This is the summary of this study:

#### 1) Imawamucasi

Imawamucasi is not connected with future but has vitality resulting from the past. Therefore, the people of Heian age has thoughts of negative reality, wandering life, and flowing time without positive point of view of the future.

#### 2) The Number of Days and Dating

It is noticeable to be able to find a great of the number of days and dating in this writing. The Number of days is often considered in the straight consciousness of time, which is recorded very realistically in the Monogatari. That means this Monogatari contains the straight consciousness of time. The straight consciousness of time is caused from the Chinese effect of calendar. It is unknown when Japanese began to use the calendar but it can be drawn out that the early Heian people was affected by calendar system through this Tagedarimonogatari.

#### 3) Moon

It is not possible to find the number of days by lunar calendar in Manyosip, but it is possible in Monogatari, which means that people of the Heian age knew lunar calendar system. The thoughts of agelessness and immortality beyond the straight consciousness of time are reflected to the moon. But the immortality and age lessness are admitted, burning the elixer of life in the end.

The thoughts are not just wishes but real facts. Those beyond the straight consciousness of time. If we think over the fact that the period of 20 years or so is extremely constricted in terms of time, we can guess that those people knew the way to expand time and space to transcend the present.

#### 4) Contradiction

The inconsisted age of the old man shows the lack of the straight consciousness of time. On the other hand, we can find the consciousness (of time) when the self awakening of

immortality and agelessness is expressed in the age of seventies and fifties; immortality and agelessness are deeply connected with the straight conscious of time.

5) Geneology of the King

The geneology of the king is considered to be the first precedent in the world, which is also derived from the straight and continuous consciousness of time, and people usually follow the geneology.

It may be concluded that people of the Heian age maintained time consciousness which is not circular. Instead, living in the world of the ever-continuing time, they seem to know how to transcend the worldly concept of time.